전남광주 온누리상품권 결제 '껑충'… 전국 2위

올해 8월까지 7414억원…전국 결제액 21.6%
골목형상점가 773곳 지정…2년 전 대비 10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올해 7414억원에 달하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남광주 지정 상권이 2024년 77곳에서 올해 8월 773곳으로 늘었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확대된 점이 결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남광주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7414억원으로, 전국 결제액 3조 4270억원의 21.6%를 차지했다. 서울의 결제액은 7691억원(22.4%)으로 전남광주보다 277억원 많았다.

전남광주의 결제액은 2022년 1627억원, 2023년 1845억원, 2024년 2306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4057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증가액은 2024년보다 1751억원으로, 증가율은 75.9%다. 올해는 8월까지의 결제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3357억원 넘어섰다.

전국 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달라졌다. 전남광주는 2022년 6.5%, 2023년 6.0%, 2024년 5.8%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0.3%로 올라섰다. 올해 8월 기준 비중은 21.6%로, 서울(22.4%)과의 격차가 0.8%p에 불과하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지역의 결제 흐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올해 8월까지 경기 결제액은 4424억원으로 전국의 12.9%, 대구는 3313억원으로 9.7%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대구가 전국 결제액의 20.5%를 차지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전남광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결제 규모가 커진 시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급격히 늘었다. 전남광주의 지정 건수는 2023년 12곳에서 2024년 77곳, 지난해 697곳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773곳에 달했다. 2024년의 약 10배이자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정 건수다.

서울과 경기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8월 기준 각각 268곳이다. 전남광주는 두 지역보다 각각 505곳 많다. 지난해 말 697곳에서 올해 8월까지 76곳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사용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방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의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밖 골목상권으로 사용처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지역별 결제 편중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상권에 결제가 집중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사용처 확대가 정책 수혜의 지역별 편차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차기 사장 인선 '원점'… 김영록 취업심사 불승인

공운위, 후보 재공모 결정…후임 선임까지 현 체제
전력망 확충·발전사 통합 앞두고 인선 지연 불가피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후임 인선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27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 차기 사장 후보군을 논의한 끝에 재공모를 결정했다.

앞서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지사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 공운위에 올렸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차기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퇴직공직자가 일정 기간 안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공모가 결정되면서 지난 19일 임기가 끝난 김동철 현 사장이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후보 모집부터 심사와 임명까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현 사장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후임 선임 시점은 재공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한 송·변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전력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려면 설비 건설 일정뿐 아니라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와 210조원을 웃도는 부채 관리도 차기 경영진이 마주할 현안이다.

새 사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이들 현안을 이끌 경영진의 장기 구상도 확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공모 이후 인선 속도와 함께 전력망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고객과 함께 '신뢰 지표' 만든다 SK텔레콤은 최근 고객자문단과 고객신뢰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고객이 직접 제안한 기업 신뢰의 기준과 지표를 논의하는 '2026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

대기업 CEO 경영 승계 갈 길 멀다… 전담기구 태부족

500대 기업 중 12곳에 그쳐… 감사·ESG위원회와 대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전담하는 기구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최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비교가 가능한 389개사의 이사회 전문위원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12곳(3.1%)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년 전보다 2곳 줄어든 수치다.

50대 그룹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별도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는 CEO 승계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없었다.

실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12곳 중 포스코홀딩스, 풀무원, 한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융기업이었다. KT는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 발굴·심사·선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증권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해당됐다.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CEO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은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이후인 지난해 폐지했다.

반면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전문위원회 수는 2024년 3.4개에서 지난해 3.6개, 올해는 3.7개로 증가했다.

위원회별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309곳(7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ESG위원회 231곳(59.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218곳(56.0%), 보상위원회 207곳(53.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ESG 경영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늘리고 있지만, 경영 승계와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EO 승계 체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갑작스러운 경영 공백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보군 발굴과 검증,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Lotto 6/45

로또 9 18 24 38 43 44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9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4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18, 24, 38, 43,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5억9252만5282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5명으로 각 4508만7397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91명으로 144만3902원씩을 받는다.

연합뉴스